

이스라엘, 조건부 휴전 동의... 이란, 역내 미군 철수요구

네타냐후, 레바논 교전 휴전서 제외
이란, 우라늄 농축·제재 해제 요구
호르무즈 개방 놓고 미·이란 평행선
친이란 충돌 땀 휴전 파기 가능성
10일 대면 협상 앞두고 중동 안갯속

전쟁당사국 이스라엘도 2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러나 레바논 헤즈볼라 등과의 교전은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에 모여든 항공모함을 비롯, 서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의 전면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2주 내 이스라엘의 친이란 세력에 대한 포격·공습이 끊이지 않거나, 이란의 중동지역 제3국 기반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이 단행될 시 일시 휴전의 효력은 상실될 수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은 종전의 길로 향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 중이다.

알자지라방송·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종전 조건 10개항

호르무즈 항행

- 이란군의 조율 하에 통제되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 이란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호르무즈 안전 통행 및 교통 프로토콜 수립

전쟁 종식·병력 철수·배상

- 불가침 보장
- 이스라엘 정권의 저항의 축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쟁 종식
- 걸프 지역 내 모든 기지 및 주둔지에서 미국 전투 병력 철수
- 이란의 전쟁 피해 전액 배상

제재 해제

- 모든 1·2차 제재, IAEA 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전면 해제
- 해외에 동결된 이란의 모든 자산재산의 해제

핵 개발

- 우라늄 농축 허용

구속력 있는 유엔 결의안

- 이 모든 사항을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자료: 4월 8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성명 /뉴시스 그래픽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대 이란 전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고 밝혔다.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을 겨냥한 지상전은 언제든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휴전 결정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총리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미국·이스라엘 및

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발표 4시간쯤 후인 8일(현지시간)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2주간의 휴전은 레바논에는 적용되지 않

역내 국가들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하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2주 중단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이란이 더 이상 미국, 이스라엘, 아랍국가 및 전 세계에 대해 핵·미사일·테러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란은 애초 휴전 대상에 레바논 전장 포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이끌어낸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이란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이 이를 반박하는 총리실 성명을 낸 것.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당사국 간 대면 협상이 예정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난 미국-이란 양국 간 입장 차는 크다.

뉴욕타임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상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또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목의 종전안을 미국 측이 전부

수용했다고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0개 항목으로 된 제안 관련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만 언급한 상태다.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은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역내 모든 기지에서 미 전투병력 철수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시위대 탄압 문제에 대한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서방이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할 의향이 과연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 시작 시점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국과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원화값 한달 만에 급반등... 추가 상승 여부는 미지수

중동 리스크 완화에 원·달러 1470원대
국제유가 하락·달러 약세, 투자심리 회복
외국인 재유입에 원화값 큰 폭 반등

연일 달러당 1500원을 웃돌던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던 ‘중동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영향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돌아오자 원화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과 비교해 33.6원(2.23%) 급락한 수준으로, 주간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3월 1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원화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값 상승)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최근 원화값 하락의 원인이 된 ‘중동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어서다.

시장의 예측을 뒤집은 일시휴전은 당초 트럼프가 예고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타결됐다. 미국 측이 제시한 15개 항

목과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목을 두고 협상한다는 조건에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할 것”이라며 “이란으로부터 10개의 항목 제안을 받았고,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약 40분 뒤, 세드 압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며 “(휴전이 지속되는) 향후 2주 동안 기술적 조건을 고려하고 이란군과의 협조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지난 7일 장중 배럴당 117.63달러까지 올랐던 서부텍사스유(WTI)는 18달러 넘게 급락했고, 111.75달러에 거래됐던 브렌트유도 약 16달러 내렸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80달러 선에 머물렀던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된다면 유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휴전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약세 전환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는 8일 장중 98.72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의 100.51(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과 비교해 1.67 내린 수준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두바이유’ 수급 우려에 급락했던 한국 원화(KRW)-일본 엔화(JPY)-대만 달러(TWD)는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 전환했다.

특히 원화는 중동사태 이후 이탈했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재유입되면서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강세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휴전이 일시적인 만큼 불안요소가 여전히 있고, 중동사태의 여파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 가치 하락의 배경 가운데는 지난 몇 년간 막대하게 풀린 통화량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진다면 원화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언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도 하락했지만, 2주 동안의 휴전 이후 중동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정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총력”

미·이란 휴전에 선박 26척 통항 기대
선사협·리스트 점검하며 운항 준비
청와대, 중동 상황 예의주시하며 점검

청와대는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 선박은 26척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통항에 필요한 선박리스

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참모진은 이란과 미국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위 실장은 실

시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동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데다 원유나 나프타(납사) 등 주요 산업 자원 공급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경제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가동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쪽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휴전 소식에 금융시장 안도... 유가·환율 급락

>> 1면 '2주 휴전... 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저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휴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 및 중동 평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의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 역시 방어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군과의 협조를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유가도 한숨을 돌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8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전장 대비 15.46% 급락한 배럴당 95.49달러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4.24% 내린 배럴당 93.71달러를 나타냈다. /하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